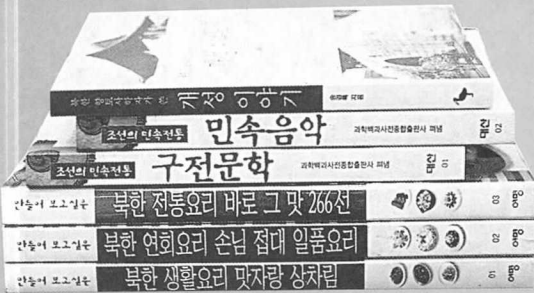


제도 정비로 남북 출판교류 활성화해야

저작권 문제가 교류막는 가장 큰 걸림돌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급속한 해빙무드를 타면서 출판계의 교류도 활기를 띠 전망이다. 90년대 들어 문화예술 분야에서 진행된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에 힘입어 북한 서적들이 간헐적으로 서점에 진출했다. 하지만 민간차원의 접촉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남북의 출판교류는 그다지 활발하게 추진되지 못한 게 사실이다.

북한 출판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현재 소개된 대부분의 북한 서적들은 요리책, 기행문, 설화집 등 실용서나 가벼운 읽을거리다. 푸른숲 선완규 인문팀장은 북한서적의 유행성 출판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출판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북한 서적은 고고학, 역사학과 같은 인문학과 학술서 분야에서 먼저 출간돼야 한다. 북한의 연구성과가 남한 연구의 빈틈을 메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중물의 출판은 그 다음에 시작해도 늦지 않다.”

한국출판연구소의 백원근 선임연구원은 “북한 서적을 출간하기 전에 북한출판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반상업적이고 반자본주의적인 북한 출판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출판 교류의 모범 사례를 통독 이전 서독과 동독에서 찾는다.

“동독의 많은 베스트셀러 작품과 소설이 라이선스판으로 서독 출판계에 소개됐다. 서독과 동독의 출판교류는 상업적인 출판에까지 그 영역이 확장됐던 것이다. 동독의 문학은 서독에서 문학 작품으로서보다는 오히려 동독인들의 생활상을 서독인들에게 전달하는 데 그 의의가 있었다.”

현암사의 형난옥 주장은 영화나 미술, 음악 등

타 분야에 비해 출판계는 북한과의 교류에 다소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한다.

“통일을 가장 빨리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문화교류다. 그 가운데 출판의 역할은 상당히 크다. 남북한의 공통점은 같은 언어를 쓴다는 것인데, 시간이 갈수록 언어가 이질화되고 있다. 출판물 통해 남북한의 언어 교류가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

저작권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지만 북한서적 출간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그 가운데 북한과의 저작권 협상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현재의 저작권법으로는 북한과 직접 저작권 계약을 맺기가 어렵다. 지금까지 출간된 북한 서적은 중국 등 제 3국을 통해 계약했다. 북한에는 저작권에 대한 규정이 없고, 우리 법에는 민간인이 북한주민과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당 강유균 국장은 ‘남북저작권보호위원회’와 같은 공식적인 기구가 필요하다면서 “북한과 직접 거래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번거롭다. 북한 출판계와 활발히 교류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거래를 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한편, 한승헌 변호사는 “실질적으로 남북한 모두에 효력이 미치는 저작권 보호 규정이 제정돼야 한다”면서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북한 서적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유통되고 있지 않다는 점도 남북 출판교류를 방해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다. 선완규 팀장은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요구했다.

“출판사가 독자적으로 북한 서적을 출판하기에는 여러 면에서 무리가 따른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출판계는 정책 입안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정부는 여론과 의견을 수렴해 출판계를 지원하면 될 것이다.”

통일부 교류협력국의 김인호씨는 정부 입장을 이해해달라고 말한다. 그는 “지금 상황에서 출판물 하나하나가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면서 “정부도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모든 것이 조심스럽게 진행돼야 한다. 북한 당국과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막혀 있다는 점도 출판계의 북한 진출을 가로막고 있다. 전문가들은 남북 출판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쌍방향 교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우리의 어떤 출판물이 북한에 소개됐는지 파악할 방법이 없다. 북한 출판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만 구할 수 있다면 한층 더 체계적으로 교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선완규 팀장의 말이다. — 김정은·최갑수 기자